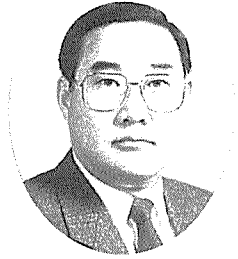


봄의 단상(斷想)



김 태 인

〈인천정유주식회사 대표이사〉

봄이다. 2000년의 봄이라고, 뉴밀레니엄의 봄이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뉴밀레니엄이란 말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귀가 따갑게 들었지 않은가?

뉴밀레니엄이라고 모두들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떠들어 댔지만, 어디에서도 놀랄 만한 변화는 없었다. 심지어 우려했던 Y2K문제도 심각하지 않았다. 뉴밀레니엄이라면 21세기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세기가 바뀌는 것만을 가지고 너무 부산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볼 일이다.

봄은 해마다 찾아 온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섭리이다. 하지만 누구도 새봄이 왔다고 그렇게 떠들어 대지는 않는다. 가끔 TV에서 유채꽃이나 벼들강아지, 겨울잠을 깬 개구리들을 소개하지만 봄이 다시 왔음을 일깨워 줄 뿐, 소란스럽게 떠들어 대지는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것이 봄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봄이건만 봄은 우리에게 뉴밀레니엄의 아침보다 더 많은 설렘과 희망을 안겨준다. 마른 나무가지에 물이 오르고, 파란 싹이 돌아난다. 얼었던 대지를 뚫고 파릇파릇 새싹들이 올라온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겨울동안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던 두껍고, 어두운 옷들에서 해방된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봄처럼 설렘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봄에 견줄 만한 것이 있다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바로 아이들일 것이다.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난 잔디 위에서 봄 햇살을 맞으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할 수 없는 희망이다. 아이들은 세상에 봄과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요즘은 봄도, 아이들도 많이 변했다. 파릇파릇 돌아나야 할 새싹들은 공해에 찌들어 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도 봄과 같은 처지인 것 같다.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은 틈만 나면 동네 오락실이나 컴퓨터 앞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학원이나 과외로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다. 봄을 느낄 시간이 이들에게는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설령 시간이 주어져도 이제 진정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기껏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이 놀이공원인데, 우리의 아이들이 어쩌다 한번 들르는 놀이공원의 잘 꾸며진 상술에 의해서 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놀이공원의 잘 가꾸어진 꽃들이 봄의 전부는 아닐텐데.....

기성 세대들이 아이였을 때는 지금의 아이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렸다. 적어도 자연에 대해서만은. 계절의 변화를 나무와 산과 강에서 느낄 수 있었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흔치 않다. 자꾸만 아이들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데 있는 것 같다. 어른들도 자꾸만 메말라 간다. 봄을, 자연을 느낄 기회가 자꾸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정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 정유회사들은 자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책임일런지 모르겠다.

4월 중순이면 인천정유의 공장에 온갖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하얀 배꽃이 속살을 드러내 장관을 이룬다. 인천정유 공장은 지역 주민들과 직원들의 소풍장소와 놀이터로 변한다. 아이들이 벚꽃길과 배밭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가족들과 김밥을 먹기도 한다. 즐겁고 평화롭지만 한 봄날의 오후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봄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주었다는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즐겁다.

혹자들은 공장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개방을 꺼리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봄을 느끼게 해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21세기의 모든 산업들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나 지구온난화, 엘니뇨, 산성비 같은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써서 환경의 중요함을 강조하려 할 필요는 없다. 바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봄이 있지 않은가?

올 봄에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봄을 선물해 주자. 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무한한 꿈을 키우며, 생명의 고귀함과 경이로움을 깨닫게 해주자. 더불어, 우리들도 잊었던 봄을 함께 찾아보자. ♣